

#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종교개혁의 직분론 이해

하성만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 1 들어가는 글

현대 교회의 위기와 대부분의 문제들이 심각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목회자가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으로 한국 교회를 일구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회의 세습과 함께 한국 교회의 자정력 상실은 이미 지적되어 온 것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습, 돈, 성, 권력, 변질된 목회자상, 혼합주의 교회의 기업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많은 문제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정홍렬, 2008:11-13). 이는 한국교회와 목사들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개혁의 필요성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유해무, 2007:32). 이 글은 종교개혁의 배경으로부터 교회의 정치 구조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론 이해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그 원리와 특징들을 현대 교회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직제의 원리에 대한 연구는 교회의 정치체제를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역사적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성경적 원리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직분에 관한 성경적 원리가 한 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정치 체제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 개혁의 진정한 유산은 교회 정치를 성경적, 신학적 원리로 복원한 것에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글은 종교 개혁이 남긴 유산으로서, '직분론의 복원'이 왜 종교개혁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신학적 원리로 채택되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 2 역사적 산물인가 혹은 신학적 원리인가?

종교 개혁의 유산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교회에는 교리적 정치적 관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은 칼빈에 이르러서야 꽃을 피웠다. 루터의 공헌을 이신득의(믿음으로 의롭게 됨) 사상을 통한 교리 개혁과 교회 구조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칼빈의 공헌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통한 교리 개혁의 심화와 직분론을 통한 교회 정치 개혁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선한 행위나 기도나 여타한 행위로서는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의롭게 됨을 강조한 것이다.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그것은 95개조항의 반박문과 항의 서한을 통하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포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루터는 교회의 구조를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로마교회의 7성례를 3성례로 축소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례와 성찬 그리고 수정된 신앙고백이었다(Thornton & Varenne, 2006: xxxi). 루터가 교리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개혁을 통한 교회 갱신을 시도하였다고 본다면, 칼빈은 교리와 정치에 있어서 더욱 원숙한 완성미를 보인다. 1537년-1541년까지 칼빈이 머물렀던 스트라스부르(Strassburg)에서 칼빈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영향을 보였던 스트라스부르의 목사였던 부처(Martin Bucer, 1491-1551)를 통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장로직을 통한 교회 자치체

확립과 집사제도를 통한 구제와 재정 분배 역할의 집사직의 직분론에 근거한 교회 정치를 완성하였으며, 제네바 사역을 통한 실제 사역을 위하여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령> (1541)과 기독교강요를 통한 저술활동을 통한 심화된 교리 설명과 교회 정치 개혁을 타당성을 기술하는 직분론의 근거 등은 장로교 정치의 정치적 근간을 이루게 된다.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교리 개혁의 심화된 결과라는 것을 볼 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공헌이 인정되지만, 부처가 이룬 교회 정치의 개혁을 승계하고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칼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교회 정치를 복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사상은 바울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적 거두의 사상들을 증편 확장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며, 교리적 개혁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교회 정치구조의 개혁에서 탁월한 완성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칼빈에게서 잘 드러나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4권에서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근거로 임시 직분들과 항존 직분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직분들은 모두 교회의 하나 됨을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칼빈의 직분론은 기독교강요 4권에서 잘 나타나 있다. 직분은 직분 수여자가 주시며, 주님은 직분으로 말씀하심을 보여주며, 직분이 위임사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4.3.1). 칼빈의 교회 직분론은 에베소서 4:11로부터 근거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은사를 따라 직분이 주어진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기독교강요 4.1.3).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직분을 받는 자에게 사사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분명히 한다(기독교강요 4.11.1). 이는 직분자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부여하신 직분위임자가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직분자가 존속하는 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고 하는 항존직 설명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써, 교회의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 때 보였던 교회 정치의 개혁이 성경의 원리에 대한 재발견으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 산물로 제한하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다. 이는 주후 1세기의 신약 시대에 형성된 집사나 장로의 정치 제도가 역사적 산물에 한정하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심창섭은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직분의 가변성을 열어 놓고 있다:

칼빈은 당시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개혁교회의 성경다운 교회직제를 위해 신약과 초대교회의 장로정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칼빈의 전체적인 교회직제관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교회의 직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장로정치제도 사상을 더 잘 이해한 경우가 될 것이다(심창섭, 1997.4.28).

칼빈이 초대교회의 장로정치 제도를 복원은 시켰지만, 어디까지나 그 시대의 상황에 의하여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즉 현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는, 교회의 본질에 기초하고 그 원리만 유지한다면, 교회의 직분이나 정치 구조를 변형하거나 신설 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성경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교회의 본질과 정치 구조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 직분론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바빙크(2008: 331)는 칼빈의 교회론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교회 제도(Church institution)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산

물(a product of believing community)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The institution of the Church, at least according to the Reformed confession, is absolutely not a product of the believing community but the work of Christ himself.” 교회의 조직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교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빈은 이를 항존직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직분들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날, 장로교 헌법(고신)에 언급되어 있는 강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권사 등의 직분들은 임시직이며, 이들도 역시 항존 직분들을 향한 교회 구성원들의 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임시직분들은 모두 항존직들을 향한 준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그 정당성이 유지된다. 이들 임시직원들의 권리는 제한되지만, 책임은 항존 직원들과 동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부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 등은 소그룹의 범위를 넘어서, 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능상 편제된 직분들이다. 각 위원회들을 조직한 다음에 그 위원장을 배치함으로써 교회 활동의 효능을 배가하려는 의도에서이다.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통하여 소그룹의 리더들을 당회장이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사의 목회적 협력자들이 장로들을 거치지 않고 소그룹의 리더들과 직접 동역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교회 활동의 효용성은 높일 수 있으나 반면에 장로들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 3 종교개혁과 교회 정치의 재구성

1517년 10월 31일은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비텐베르크성의 만인성자교회<sup>1)</sup>(All Saint's Church)의 정문에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붙이고, 알베르흐트(Albrecht, 1490-1545)<sup>2)</sup> 대주교에게 95개 조항을 첨부한 항의 서한을 보낸 날이다. 그가 보낸 서한은 당시 로마에 있던 베드로 교회<sup>3)</sup>의 교회당 신축 자금 확보를 위하여 알베르흐트가 고용한 테젤(Johann Tetzel, 1465 - 1519)이 면죄부를 강매하기 위하여 교리를 왜곡하여 설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루터의 이러한 행동은 1513년 교황 레오 10세가, 이미 1503년에 교황 율리오 2세에 의해 시작된 면죄부 판매를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교황 레오10세는 독일의 세 교구를 맡고 있던 알베르흐트 대주교를 소환하여 교회당 신축 자금을 조성하도록 독려했고, 당시 무역업과 은행업을 하고 있었던 퍼거 은행가(the banking house of Fugger)로부터 교회당 신축을 위하여 자금을 빌리게 하고, 면죄부의 판매 금액으로 융자금 상환을 하게 하였다. 그 반박문과 항의 서한은 교회당 신축을 이유로 금권과 이권이 타협한 것에 대한 루터의 교리적 항거였다.

그 반박문과 항의 서한의 결과는 1519년 7월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일어났다. 루터는 로마교회의 공식 파견자들(officials)과 그의 95개조를 논쟁하였는데, 이 때 그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 (Thornton & Varenne, 2006: xxxi). 교회는 세상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그의 말은 교

1) 편의상, 비텐베르크 성교회(Castle Church in Wittenberg)로 불리기도 한다.

2) 1513년에 마그데부르크(Magdeburg)의 대주교(Archbishop)가 되고, 1517년에 추기경(Cardinal)이 되었다.

3) 1506년에 신축하여 1626년에 완공하였다.

회는 교황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만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는 곧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며, 과거의 교회 회의들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 권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Thornton & Varenne, 2006: xxxi).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인문주의의 발흥과 함께 교회의 반대 세력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의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쇄술의 보급과 발달 기술이라고 설명은 지나치지 않다. 1517년 이후의 루터의 출판은 32중에 3만권을 넘어섰으며, 1511년에 비하여 1524년도의 독일의 인쇄물 평균 발행부수가 10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인쇄술의 보급과 인쇄술의 발달이 증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경은, 2012: 241; Holborn, 1942: 126).

1520년 6월 15일에 루터는 60일 이내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파문을 당하였으며, 그 결정문은 1521년 1월 3일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공식 파문당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해 8월에 로마교회의 부당함 세 가지를 지적하며 독일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출판 하였다. 그 세 가지는 제사장,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가 되는 성직자의 권한, 그리고 오직 교황만이 교회 공의회를 소집 권한이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세례로부터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루터는 바벨론의 통치자요, 적그리스도로서 교황을 버리게 되었다(Thornton & Varenne, 2006: xxxi). 이 때 루터는 로마 교회의 7성례로부터 3성례로 교회의 재구성하였다. 즉, 세례, 성찬, 수정된 신앙고백이었다. 그가 주장한 성찬 개념은 성찬 중에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것이었으며, 제사장적 희생으로서의 성찬이 아니었다. 이러한 루터에 의한 교회의 구조적 재구성은 1520년에 이루어졌다 (Thornton & Varenne, 2006: xxxi-xxxii).

루터보다 26년 후의 인물인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파렐과 부씨의 영향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 사상을 형성 발전시켰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의 출간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신학사상을 심화 발전시켰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칭의 교리에 치중했던 루터에 비하여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크게 확립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교리적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진정한 공적은 교회의 직분론 복원에 있다. 교회의 장로직에 대한 언급은 칼빈의 <교회법령>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과 <기독교강요>를 통하여 잘 나타나 있는데,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네 직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다.

그가 말하는 교사의 직분은 신학을 전공한 박사를 의미하였는데, 목사와의 차이를 설명할 때, 두 직임이 동일하지만, 가능 상으로 박사는 목사직과는 달리 세례와 성찬을 집행할 수 없으며, 권징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으며, 다만 목사직분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안전한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하나의 직분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두 단어 사이에 접속사가 없다는 것과 크리스소스톰(349-407)이나 어거스틴(345-430)도 하나의 직분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alvin, 1960: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목사는 교사일 수 있지만, 교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Calvin, 1960: 58). 물론 칼빈과 그의 제자 베자(Theodorus Beza, 1519-1605)는 교사와 목사를 겸직하고 있었지만,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가 운영되면서 겸직하지 않은 자들도 나타났다(Kingdon, 2004: 108).

또한 칼빈은 목사(pastor), 장로(presbyter), 감독(episcopos), 사역자(minister) 등에 해당하는 단어들

이 동의어들이므로 간주하였다. 이경실(2009: 96)은 칼빈이 이들 단어들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이라고 구별 없이 부른 것은 이 용어들을 혼용한 성경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Calvin, 1960: 5). 칼빈이 이렇게 혼용하는 이유는 디도서 1장 5절에 디도에게 명하기를, “내가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고 하였는데, 곧 이어 7절에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등의 글을 남김으로써 이들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인사말에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였던 것과, 사도행전 20장 17절의 “장로들을 청하니”와 28절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예들을 혼용의 성경적 근거로 들고 있다. 개혁주의 교의학(1928)을 저술한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2008: 334)도 역시 감독들과 장로들을 동의로 보지만 그 차이를 두고 있다. 모든 감독은 장로로 불릴 수 있지만, 모든 장로들이 감독으로 불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딤후5:17-18; 롬12:8; 살전 5:12):

..., while they were first called “elders” because they were usually chosen from among the class of elders, were later, with a view to the work assigned to them, called “overseers.” “Overseers,” then, are elders who were designed for a specific ministry in the church. Hence all “overseers” were “elders” but far from all the “elders” were “overseers.” (Bavinck, 2008: 342)

칼빈이 교회법령으로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의도는 교회의 자치를 위함이 목적이며, 시 의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칼빈의 장로직에 대한 회복 노력은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장로직의 최초의 등장 시기는 1467년에 이미 보헤미안-모라비안(Bohemian-Moravian) 형제단들의 교회에서부터이다. 이들은 장로들을 로마교회의 교황감독제 대신 채택했으며 목사들을 장로들이 감독한 것으로 나타난다(교갱뉴스, 1997.4.28). 형제단들은 1540년에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와 칼빈을 방문하여 장로정치를 유지하였던 그들의 입장에서 토론하였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 구조의 형성에는 형제단의 영향 뿐 아니라, 1530년에 바질(Basil)의 종교개혁자 오코람파디우스(Oecolampadius)의 바질에서의 교회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교갱뉴스, 1997.4.28). 오코람파디우스의 교회 개혁은 시 당국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부처(Martin Bucer, 1491-1551)는 1532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오코람파디우스가 만들었던 위원회중심과 유사한 성격의 교회관리단(a board of Kirchenpfleger)을 세우고, <스트라스부르 교회규정> (Ordinances, 1533)을 제정하게 되었다. (교갱뉴스, 1997.4.28). 이는 이후 제네바에서 칼빈의 목회에서 장로직을 세우는 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교갱뉴스, 1997.4.28).

형제단의 영향을 받아 장로정치를 운영하였던 스트라스부르의 개혁가이며 목사였던 부처는 스트라스부르에 피난 온 칼빈에게 이민 목회를 부탁하였다. 칼빈은 이곳에서 400-500여명의 프랑스 난민들로 새로 구성된 교회를 장로정치의 체제로 목회하였다(교갱뉴스, 1997.4.28.).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다시 청빙을 받은 칼빈이 제네바에서의 사역에 이 장로정치를 도입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령> (1541)은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이 제네바사역을 염두에 두고 당시 제네바에 있던 4명의 목사들과 함께 작성한 것이었으며, 1544년에 최종 채택되었다.

한편 개혁교회에서 두 번째로 간주하는 직분은 집사직이다. 바빙크(2008: 345)는 감독과 장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두 번째 직분을 집사로 꼽고 있다. 이는 감독과 장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칼빈(1960: ??, 5)이 비록 네 직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목사와 교사를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분으로 간주하며, 장로를 “감독들과 함께 도덕에 대한 책망과 권징의 실행을 맡은 자들”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로와 감독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생각했던 약간의 차이만을 보인다. 이는 미국의 장로교회들이 두 직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목사와 장로라는 명칭은 구별하여 사용하되, 직분은 장로라는 동일 직분으로 간주하며 기능 상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와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 등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PCA, 2008: 80-81).

#### 4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직분론 상관성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교부신학으로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이를 조직신학 체계로 수립한 최초의 사람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실이다(최정자, 2012: 197; Ott, 1973: 267). 구약에 나타난 세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한 것이다. 즉 제사장, 왕, 선지자는 각각 그 시대의 형편을 따라 출현하였으나, 각각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직분이며, 구약에서의 제사장왕과 선지자 직분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드러낸 것은 확실하다(박형룡, 2006: 257; 최정자, 2012: 202; 시 110: 4; 속 6: 13).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제사장직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히 2:16, 3장; 4:14-15; 5:5-6; 6:20; 7:25-6; 8:1; 10:12; 요일2:1-2; 롬8:34; 박형룡, 2006: 258; 최정자, 2012: 202, 203).

구약의 세 직분들 중에 제사장 직분은 구약 교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직분이었다.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인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대하15:3). 제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코헨(כהן, priest)은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헬라어 단어인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 deacon)는 ‘서서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킨다. 식탁 봉사를 위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직분 모두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직분들이다. 이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각각 만들어진 직분들이지만, 각각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거나 잘못 행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제정하신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해, 신약 교회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집사직분은 주된 임무가 재정의 수집과 분배에 있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외당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였던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이 집사 직분은 초대 교회에서 재정의 수집과 분배 역할 뿐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바른 교리를 교회 안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집사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기록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행 8:26-40; 21:7-14). 또한 집사 니콜라가 당을 형성했던 현상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행6:5; 계2:2, 6).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적이었으나, 신약의 집사직은 선출직이었다는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직분들은 가르치는 것과 서서 시중드는 봉사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제사장직은 구약의 직분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으며, 신약의 직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통점

이 있다.

물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출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선지자로 불리었기 때문에 직분의 출현 시기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제사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이었다고 할 수는 있으며,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불리었으나, 그들의 시대를 제사장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아 놓고, 율법과 제사를 공식적으로 가르치신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구속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제사라고 하는 두 가지 방도를 처방하시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약교회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제사장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창20:7; 출20장).

모세나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불리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직의 공식적인 출현은 사무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창20:7절). 이는 마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으나, 제사장으로 불리지 않고 있는 이치와 같다. 선지자 시대의 개막은 사무엘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은 이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그가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왕직을 수행한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삼상7:6). 이러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였던 백성들에게 사울을 세워 왕직을 수행하게 한 사실은 그가 왕직을 열었던 이스라엘의 국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준다(삼상12장). 곧 이어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서 선지자들을 집단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곧 이어 형성될 선지자 시대를 준비하게 된다(삼상15:34-35; 19:20).

구약교회에서 두 번째 출현하는 직분은 왕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실리우스(βασιλεύς, king)라는 단어이다. 다른 이방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의 직분이다. 이는 신약의 장로의 기능과 동일하다. 신약의 장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프레스비테로스(πρεσβύτερος, elder)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감독이나 목사와의 혼용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해서 장로는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히브리식 단어로서, 이단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단 이방의 적들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책임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엿보인다.

마지막 항존직분으로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직분들은 선지자와 목사직분이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 시대와 실정에 적합한 말씀으로 전달해야 하는 기능을 위하여 주어졌다. 구약에서의 선지자라는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비(נָבִי, prophet)’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직에서나 신약의 목사직에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말씀으로 전달해야 하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해 하는 공통점이 있다.

## 5. 나가는 글

종교개혁 때의 직분들은 교사 혹은 목사직과 함께 집사직분과 장로직분이 등장하여 성경시대의 직분들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현대 교회에서 직분론에 기초한 교회론은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항존직분을 역사적 산물로 보지 않고 성경적 원리로 이해하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구속계시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형룡. (2006) [1973]. 『교의신학』. 제4권.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이경실. (2009). 칼빈의 교회 직분론과 조직경영. 로고스경영연구, 7(1), 87-102.
- 이신열. (2010). 칼빈의 은사 이해. 성경과 신학, 53(0), 79-107.
- 정홍열. (2008).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 - 종교개혁신학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회, 12(0), 10-38.
- 조봉근. (2009). 칼빈과 한국장로교회의 교파별 교회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조직신학연구, 12(0), 10-37.
- 최경은. (2012). 종교개혁이 서적인쇄에 미친 영향 한국독일언어문학회(구 독일언어문학연구회), <독일언어문학, 57(0), 239-264.
- 최윤배. (2007). 칼빈의 교회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9(1), 93-122.
- 최윤배. (2011).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초기 사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론 연구. 장신논단, 40, 289-310.
- 최정자. (2011). 박형룡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연구, 14(0), 170-188.
- 최정자. (2011). 예수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필요성과 박형룡에 의한 그리스도의 왕직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 최정자. (2012). 박형룡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체사장직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연구, 16(0), 197-212.
- Bavinck, herman. (2008). *Reformed Dogmatics: Volume 4: Holy Spirit, Church, and New Cre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Holborn, Louise W. Printing and the Growth of a Protestant Movement in Germany from 1517 to 1524, in: *Church History* 11 (1942), S. 123-137, hier: S. 123.
- Ott, Heinrich. *Die Antwort des Glaubens*. Kohlhammer, 1981.
- <https://zh-cn.facebook.com/notes/dong-soo-shin/%EA%B8%B0%EB%8F%85%EA%B5%90%EA%B0%95%EC%9A%94-%EC%97%B0%EA%B5%AC%EB%85%B8%ED%8A%B8-11-%EC%B9%BC%EB%B9%88%EC%9D%98-%EB%AA%A9%ED%9A%8C%EB%A1%A0%EC%A7>



%81%EB%B6%84%EB%A1%A0-iv%EA%B6%8C-3%EC%9E%A5%EC%9D%84-%EC%A4%91%EC%8B%AC%EC%9C%BC%EB%A1%9C/1288736974489396(검색일 2016.10.15). 신동수 <기독교강요 연구노트>, 2016.5.1.

<http://www.gn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2>. (검색일 2016.10.15). 굿뉴스테일리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와 루처의 95개조 반박문.” 2014.7.4.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31>. (검색일 2016.10.14). 심창섭, 교갱 뉴스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원은 무엇인가?’ 1997.4.28.